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문 성 원†

우석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행동을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자살 사이트 관련 사례들을 일반적인 자살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개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2에서는 자살 사이트 관련 자살시도자와 자살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자살 사이트 접속이전에 가지고 있던 심리적 변인들과 자살 생각이 실제로 자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살사이트 문제는 자살과 관련된 기제와 인터넷 상호작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정신 건강 서비스의 진화 방향 그리고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위기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주요어 : 인터넷, 자살 사이트, 자살 시도, 자살, 역기능, 예방

“...자살 사이트 회원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에 에 도와주고 싶었다...죽고 싶다는 사람이 10 여 서로 동의했고,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했기 때문 명 더 있다...”(국민일보, 2000, 12, 16). “자살이 생

문성원은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이 논문의 일부는 '01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 교신저자 : 문 성 원,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과,
전화 : 063-290-1377 E-mail : drswmoon@hanmail.net

각날 때(한겨레, 2000, 12, 15)”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몇몇 젊은이들은 자살에 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제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군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고 결국 번번히 미수에 그치고 말았으나, 지난해말 이들은 동반 자살, 청부 자살 등의 방법으로 마침내 목숨을 끊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해였던 2000년에 발생한 자살 사이트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해당 사이트의 대다수는 자살 방지 사이트였지만 일부는 촉탁을 받고 실제로 대신 살해를 해주었으며, 당시 ‘자살 도우미’ 수십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경향신문, 2000, 12, 31).

1996년 소설가 김영하는 자살과 자살 도우미를 다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출판하여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현재도 작가가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으로 꼽고 있는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자살 도우미)은 현실에 지친 사람들을 찾아서, 자살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는 자살에 이르도록 해주는 심리 상담도 해주고, 각종 자살 방법들을 조언해주며, 사용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등 실천을 도와준다. 소설이 출간되었을 때 평론가들과 독자들은 이 자살도우미의 이야기를 김영하만의 독특한 상상으로서 받아들였지만 불과 몇 년안에 소설속의 이야기는 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현실로 나타났다.

사실, 자살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이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손쉽게 이용하는 의사소통 매체이자 생활의 일부 분야이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도 관계없이 인터넷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된다. 사실과 관계없는 메시지가 등록이 되어도 순식간에 많은 수의 사람

들에게 메시지가 공유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되어버리기도 하며, 사소한 글 하나에도 엄청나게 촉발되어 게시판이 뒤덮힐 만큼의 글이 뒤따라 오르는 곳도 인터넷이다(Lea, O'Shea, Fung & Spears, 1992). 그만큼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은 빠르고 강력하다. 메시지 전송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자살 사이트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자살 시도를 위한 만남 또한 “번개”¹⁾처럼 손쉽게 이루어져, 결국 단시간내에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의 놀라운 파급 효과로 인해 자살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는 사이트를 찾을 수조차 없을 만큼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여러 자살 사건들은 연이어서 계속 발생했다. 최근에는 한 정신과 의사가 개설한 자살 예방 사이트가 동반 자살의 매개체가 되었으며(경향신문, 2002, 2, 24), 왕따에 대한 피로움으로 인해 자살 사이트를 찾은 여중생들이 성인 회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도 발생했다(문화일보, 2001, 10, 20). 유해 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은 더욱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전자신문, 2001, 10, 10), 오히려 하반기 들어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성인/자살 사이트 접속률은 25.6%로 상반기의 2배로 증가했다. 더구나 규제의 움직임 한편에서는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며, 자살 사이트의 순기능을 외면한 무조건적 폐쇄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외형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살 관련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기저에 명확히 다루어져야 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1) 인터넷 게시판상에 당일 고지후 즉석 만남을 가지는 것 혹은 채팅하다가 즉석 만남을 가지는 것

있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 문제는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역시 불충분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한 유형이 아니라 변화의 엔진이기 때문이다(Costigan, 1999). 자살 사이트 문제는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에 덧붙여서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문성원, 1999a)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함께 연관되어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인터넷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면대면 관계에서라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문성원, 1998, 1999a, 1999b).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특정 개인과 메시지를 교류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개인이 인터넷을 접속하여 이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는 다른 내면의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하는 동안은 사회적 의식이 낮아지게 되면서,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몰입을 하게 되어 보통 때는 자신의 내적 사고내에서만 표현하던 말들이 더욱 용이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Kiesler, Zubrow, Moses, & Geller, 1985). 특히, 개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익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집단은 대면 집단에 비해 대인 상호작용시 더욱 많은 비억제적 행동을 보였으며(Siegel, Dubrovsky, Kiesler & McGuire, 1986), 의사 결정 상황에서는 더 극단적이고, 비전형적이며,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은 이처럼 사람들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내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만,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은 그동안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온 경향이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역기능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 이전 잠깐 언급이 되었을 뿐(이수원,

1989; 이훈구, 1989; 조명환, 김정오, 1995),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보화의 촉진에 대한 논의만이 활발했다. 그러나, 효율성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시대의 내면에는 전통적 가족 구조의 와해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위험 요인들이 큰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종종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체험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심리적 문제를 유발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raut는 2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과 외로움의 수준이 함께 증가한다고 밝힌바 있는데(1998: 류인균 등, 2000에서 재인용), 우울은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데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자살 사이트 문제는 그 중요성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 실제로, 대면 상담의 경우 자살 의도의 탐색은 접수 면접 과정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중요한 부분이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혹은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자살 의도들은 거의 방치나 다름 없는 상태에 있다.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원인론에 대한 연구 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자살에 대한 사례 보고가 일부 있을 뿐이다(Alao, 1999; Janson, et al,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사이트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인터넷과의 관련성 자체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제한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연구자들의 적극적 관심 분야로 고려되지 못

하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아직도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살 사이트 문제를 비롯하여 인터넷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역기능등을 단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일부 특이 현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미 인터넷이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은 사람들의 대인 의사소통 과정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이용자와 인터넷이 끊임없이 강렬한 상호작용을 교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역기능들의 기저 메카니즘을 미리 탐지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예측 못한 수많은 병리들의 발발을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인터넷 관련 연구들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편함도 자살 사이트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점일 수 있다. 김정운(2001)은 APA의 논문 양식에 따르는 다수의 심리학 연구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실' 보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다루기도 쉽지않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기에도 불편한, 자살 사이트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찾기 어려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새로운 매체가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은 전통적인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Rice & Rogers: Jones, 1999에서 재인용). 새로운 매체는 기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약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Jones(1999)는 인류학이나,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이 아닌 다른 매체를 중심으로 사용하여온 연구방법론이 현대사회속의 인터넷을 연구하는데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

문을 제기한바 있다. 또한, 조한혜정(2000)은 이제 개인 중심의 사회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대량생산 체제의 '인간발달'의 틀로 더 이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을 연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제는 연구의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새롭게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해낼 새로운 개념과 도구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조한혜정, 2000).

이러한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의 현상들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이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떠올리며 자살 사이트를 찾게 되기까지의 심리적 원인과 과정들, 자살 사이트 방문에서 실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는 자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기능적 행동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취약성 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 단계에서 심리학적 개입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현재 제한적 효과만을 거두고 있는 여러 정신건강 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의미있는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자살자들 및 미수자들의 특성 및 각 자살 과정의 특성, 자살 사이트의 기능적 특징등을 살펴보고, 추후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두 편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자살 사이트 관련 사례들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2에서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살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

결 과

방 법

연구 대상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자살 사이트와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자살 사례들이 대상이 되었다. 사례의 선택은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였다.²⁾

연구 절차

먼저,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의 세부 사항을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나이, 성별, 자살 방법, 동반 자살 여부, 자살의 성공 여부, 인터넷 관련 여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PC통신인 '천리안'의 뉴스 검색 프로그램과, 인터넷 검색 엔진 다수를 이용하였는데, 핵심 단어로는 "자살",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을 사용하였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사 별로 또는 보도 시기 별로 정보 공개 수준이 달랐고, 일부 사건의 경우는 특정 언론 기관에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각 검색 결과를 대조하여 가장 자세한 정보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나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추가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아니었으므로 사례 번호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세부 사항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했다.

자살 사이트 관련 자살 사례들에 대한 개괄적 분석³⁾

본 연구에 포함된 전체 사례에 대한 요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15건의 사례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 10건이 성공을 했다. 각 사례들과 관련하여 총 25명(남자 17명, 여자 8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전체 사례중 여섯 개의 사례가 인터넷 자살 사이트인 '자살이 0000'의 회원들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다섯 개의 사례는 촉탁 살인 용의자로 구속된 남 0와 관련되어 있었다. 남 0가 촉탁 살인 미수와 동반 자살 미수 끝에 최종적으로 촉탁 살인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한 건의 촉탁 살인 미수 사건도 역시 또 다른 인터넷 자살 사이트인 '00 자살' 동호회를 매개로 하여 발생했다.

인구학적 분석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28세였으며, 여성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M=19.75$ 세, $SD=2.96$)이 남성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M=24.94$ 세, $SD=6.05$)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편이었다($F=5.216$, $p<.05$). 대부분의 사례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되어서,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단지 한 사례에 불과하였고, 성공한 10건중 19세 미만이 관련된 경우가 6건에 해당하였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13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세였는데, 모두 남성들이었다. 여성들의 경우 평균 20세가 채 되지 않은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자살 행동이 발생하였던 것에 비해서, 남성들의 경우는 더욱 광범위한 연령대에서 더욱

3)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의 신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단서는 삭제했다.

표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에 대한 분석

시도	성공여부	촉탁여부	관련된 사람(나이)	인터넷 관련	방법 (세부사항이 밝혀진 경우)
1	중단	○		○	
2	중단	○		○	
3	중단		남○(20) ¹ , 여○(23) ³ , 남○(28) ³ , 남○(26) ¹	○	동반 추락
4	중단	○	남○(20), 남○(28) ³	○	광목으로 목을 누름
5	○	○	남○(20), 남○(29) ¹	○	칼로 찌름
6	○		남○(28) ¹ , 남○(26) ¹ , 남○(21) ¹	○	독극물
7	중단	○	남○(21), 여○(23) ³	○	목을 조름
8	○		남○(34) ¹ , 남○(31) ¹	강력추정	독극물(청산가리)
9	○		남○(31) ¹ , 남○(28) ¹ , 여○(17) ³	○	독극물
10	○		남○(15) ¹	추정	독극물(살충제)
11	○		남○(13) ¹	○	독극물(농약)
12	○		남○(33) ¹ , 여○(20) ¹ , 여○(19) ¹	○	독극물(청산가리)
13	○		남○(26) ¹ , 여○(23) ¹	추정	독극물
14	○		남○(22) ¹ , 여○(17) ¹ , 남○(27) ¹	○	독극물(제초제)
15	○		남○(28) ² , 여○(16) ¹	○	독극물(제초제)

주. 1=사망, 2=중태, 3=중도포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살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동반 자살 여부

성공한 10건 중에서 1건의 촉탁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9건 중 7건은 동반 자살이었고, 시도만으로 그치고 말았던 5건의 사건 중 1건이 동반자살이었다. 나머지 4건은 모두 촉탁에 의한 것이었다. 즉, 단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던 경우는 2건에 불과하였다. 동반 자살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의 자살 도우미가 관찰되었는데, 한 사람의 경우 4건의 사례에 관련되어 있었다.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끼리 단지 인

터넷 사이트만을 매개로 만나서 자살을 시도했던 8건의 동반 자살중 6건은, 남녀가 함께 모인 경우였으며, 2건은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시행했다.

만남의 방법은 게시판에 자기 뜻과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리거나, 게시물 중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오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강한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 내의 대화방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대신 사이트를 매개로 해서 알게된 특정 사람들하고만 만남을 가졌다.

자살 시도 경험의 유무

자살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는 심층적 자료 수

집이 가능하였던 두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두 사람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의 자살력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접하였으나,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 모두는 이전에 자살 경험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자살 사이트 가입 이전에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한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자살 방법

촉탁 살인을 제외한 모든 경우 음독 자살의 방법을 택했다. 현재도 음독 자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인 D 사이트⁴⁾의 한 운영진은 얼마전 다음과 같은 전체 메일을 보냈다. "...제발 저한테 수면제나 그런거 구해달라는 멜좀 보내지말아주세요..—; 구할수 있어도 저 절대 안보내줍니다..카페에 관한거나.. 약에 대한 문의는 해두 별.. 상관없는데.. 구해서 보내달라는 글은 제발..—+". 그녀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 메일을 통해 약물에 대한 구입 의사를 알려온다고 하였으며, 안티사이트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런 메일을 자주 받게 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논 의

자살에 관한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 대개 시도는 약 4배 정도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더 높으며, 남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방

법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극약을 이용한 자살을 더 많이 한다(APA, 2002; NIMH, 2002). 그러나, 인터넷이 자살의 매개체로 작용하게 되자 이러한 일반적 경향성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자살 도우미 역할을 했던 두 명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여자는 8명이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남자는 15명이 자살을 시도하였다. 약 2 배 정도로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살에 실제로 성공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바와 같이 남자가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상당히 근소한 편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자살 행동을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단독 자살이건 아니면 동반자살이건간에 관계 없이 모두 독극물을 자살 방법으로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자살 사례중 동반자살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나치게 높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례들이 자살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과도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2001년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인터넷 이용자가 1천 262만 명, 여성이 961만 명으로 남성 인터넷 이용자가 여성에 비해 301만 명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7~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87.6%로 가장 높고 이용자수도 787만 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리고, 그 뒤를 20대와 30대가 이었다. 인터넷 사용량은, 3시간 미만 사용자에서 5-11시간 미만 사용자까지는 여성이 다소 앞섰지만, 11-15시간 미만 사용자에서 31시간 이상 사용자는 남성이 다소 앞선다. 즉, 여자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이 과다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10대에서 20대, 30대로 이어지는 젊은 연

4) 연구자가 실제로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평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반적인 자살 관련 자료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성별과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는 본 연구에 포함된 자살 사이트 사례들과 관련성이 높다.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례들이 통상적인 자살 관련 통계들보다는 인터넷의 주요 혹은 과다 이용자들의 자료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이들 사례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된 변인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자살 사례들에서 독극물이 주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고, 동반자살의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점 또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다. TV나 라디오와는 달리 인터넷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보, 특히 주목을 끌만한 정보의 공유 속도가 놀랄만큼 빠르다. 누군가 재미있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다수는 그 글을 “퍼간다”⁵⁾. 이러한 과정을 몇번만 거치면 굳이 원치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정보가 전해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누군가가 그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우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더라도 몇번의 검색 과정과 ‘클릭’을 통해서 결국은 역시 같은 내용의 정보에 도달하게 된다.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원하던 혹은 원치않던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살과 죽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소재이다. 독극물에 의한 자살 방법 역시 가

장 널리 보급된 하나의 방법론일 가능성이 있다.

동반자살의 경우는 인터넷중에서도 커뮤니티 기능과 관련이 높다. 인터넷상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의 접속 과정에서 유사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정보의 인근에는 대개 전자게시판이 설치되어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자우편주소 정도는 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는 처음에는 특정주제에 대한 관심에서 접속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특정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접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는 인터넷상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커뮤니티 회원들간의 오프라인 모임⁶⁾을 통해서 동반자살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례들에서 간과할 수 없었던 점은 자살 도우미의 존재이다. 한 사람의 도우미가 여러 사례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과 한 사람 이상의 도우미가 출현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들어 회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손쉽게 범죄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말은 이용자가 범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금지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다가 (Moon & Han, 1996), 최근에는 공격성이 과다한 인터넷 이용과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종범, 한종철, 2001).

6)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된 사람들끼리 실제로 얼굴을 대하며 만나는 것

5) 인터넷상에 게시된 자료를 복사해 가는 것. 복사해온 자료를 다른 사이트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보통 “편 글”, 혹은 “퍼온 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직접 작성한 글과 구분한다.

연구 2

방 법⁷⁾

연구 대상

신원이 확인된 자살자, 자살시도자, 자살도우미 등이 대상이 되었다.

연구 절차

신원이 확인된 자살자, 자살시도자, 자살도우미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자살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다.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성 있는 사례의 대상자들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⁸⁾. 자살자중 한명에 대해서는 자살자가 다니던 학교를 통하여, 자살자의 친척과 면담한 적이 있는 사람(이하 주변인물 1로 표기) 및 가장 가까이 지낸 친구를 만나 이전의 자살시도 경험, 정신건강력, 가족관계 및 교우 관계, 성격, 스트레스원 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얻었다.

자살 시도자와의 만남은 편하지 않은 장소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만큼만 가능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상자가 겪은 일련의 심리적 상태를

7) 당사자와 관련 문건을 비롯하여, 자살 사이트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되었던 점은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법적인 조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다. 실제 자료의 획득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따랐다. 따라서, 연구의 일부분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술되었다.

8) 연구의 초기에는 더 많은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면담을 시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연구자 개인이 한사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일도 힘에 부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 수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해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개방형 질문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Fontana & Frey, 1994)을 실시하였다.

자살을 도왔던 사람의 경우,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가 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 두었다. 자살 시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일부 소개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만을 간단하게 포함시켰다.

결 과⁹⁾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주변 인물과의 심층 면담에 대한 분석

자살 시도자와의 면담에 대한 분석

자살 시도자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두 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가 중단되었고,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살에 성공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나,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다음의 내용은 비구조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자살시도자와의 면담 내용을 연구자가 시간 순서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범주를 정하여 다시 재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사용한 단어나 어구를 그대로 포함하려고 하였다. 정리 방법은 Ely(1991), Huberman과 Miles(1994)를 참조하였다.

9)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대상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적 정보는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은폐되었다.

자살 사이트 접속 이전의 심리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원 및 긴급한 자살 촉발 원인: 개인 사업 중 사기를 당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니 생활고로 연결되어 빚이 더 늘고, 대출 건이 지연되었다. 지금 생각하니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때는 벨소리만 나도 못 견뎠었다. 2달 반 정도를 혼자서 고민했고, 1달 넘게 돈 구하러만 다녔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오니까 밤에는 술을 마셨다. 사건 당일에도 은행에 다녀왔는데, 막상 가보니 은행에서는 대출이 올스톱 되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말을 하려고 날 여기로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족 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중 3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여동생이랑 어머니랑 살았다. 여동생이 일찍 시집가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혼자서 다 대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재테크에 빨리 눈을 떴지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상하게도 친구나 동료들에게 돈을 떼이는 상황이 꼭 생기곤 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및 사회적 지지 원: 힘들 때는 혼자 끙하다가 엄한데 화풀이한다. 그래서, 술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도 낸다. 이번에도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현재의 여자친구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되었는데, 사실 너무 성급했다. 서로를 잘 몰랐다. 힘이 전혀 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기는 했으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의지할 데가 없었다. 장래를 약속했었지만 애랑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 시도 경력: 이번이 세 번째다. 군대가기

전에 2번 있었다. 한번은 농약을 마셨고, 한번은 배를 갈랐는데, 너무 아팠다.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힘들 땐 당시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었다. 혼자서 술을 마셨다.

자살 사이트 접속 이후의 과정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사용 능력: 반 컴맹 상태나 다름없다. 메일 주고 받고 게시판 들락거리는 정도만 한다.

자살 사이트 가입 동기: 부모 돈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고 하니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또, 편하게 죽고 싶었다. 누구랑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저 편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사이트 들어갈 때는 죽음 생각이 반반 정도였다.

자살 사이트 접속 과정: 혹시나 해서 검색어를 치니까 사이트가 몇 개가 났다. 그러다가 문제의 사이트까지 가게 되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첫 느낌: 90% 이상이 애들이었고, 우스운 이유들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돈 문제였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글로서 하소연하고 있었다.

자살 사이트 접속 이후 자살 시도자의 활동: 맨 장난투성이 글뿐이어서, 진짜로 죽음에 대해서 의논할 사람을 찾는 것은 몇 개 없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자살 상담자가 되었고, 게시판을 읽다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A를 만났다.

동반 자살 결행 집단과의 만남과 실제 자살 시도 과정을 중심으로

동반 자살 결행 집단과의 첫 만남과 사람들에게 대한 느낌: 게시판의 메시지가 계기가 되어서

A와 통화하게 되었다. 만나보니 A는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되었던 B의 힘을 빌어 자살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 몸에 남아있었다.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임신했다가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불쌍했다. C는 노름빚이 많아서 자살하려한다고 했다. B는 냉혈 인간 같은 느낌이었는데, 말만 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개랑 잘 때는 다들 문을 모두 걸어두고 잤다. 무서웠다.

첫 만남에 대한 느낌: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니 심정이 편해졌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편했다. 공감대 같은 것이 있었다.

첫 번째 시도: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시다가 자살 얘기가 나오자 반 필름 끊긴 상태로 다들 함께 죽으러 갔었다. 동반 추락을 하기로 했는데,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 했다. 난 막상 닥치면 핸들을 틀어버리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거 같다고 하니까 B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막상 하려니까 A가 그만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A는 울고 있었고, C는 노래를 불렀다. 여자애가 남자애랑 그러고 지내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았는데다가, 더구나 B 한테만 돌아가자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다. 오면서 개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는 칼로 죽을 거라고 했다. 나도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럼 C는 빼자고 했다. 사실 C는 인상이 나쁜 편이다. A가 오빠는 왜 죽을거냐면서 죽을거면 자기네에게 〇〇원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은 아니더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시도: 은행에 다녀온 후 채념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D가 와서 바다에 가자고 했

고, 그쪽에서 연락을 먼저 해와야만 연락이 가능한 C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했다. 죽으러간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술을 마시다보니 죽는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노래방 가서도, 노래도 안부르고 나와서 숙소에 들어갔다. 서로 겁나는 상황이었다.

동반 자살 시도의 과정: 먼저 제일 어린 D가 극약을 먹었는데, 웃으면서 쓰다고 하니까 다들 웃었다.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나머지도 약을 먹고 쓰러졌다.

자살 시도 포기후의 느낌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는 자살 이유: 사실 안죽을 줄 알았다. 모두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죽은 것 같다. D는 순진한 애였는데, 분위기에 휩싸여서 죽었다. 괜 거기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자살 사이트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 단도직입적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사연을 구구절절 읊어대는 사람은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죽는 얘기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이 위험하다. 모아지면 도같은 성격들이다. 사실 용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간다. 집단취면 같은 거다. 만나면 위험해진다

자살 사이트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 있는 게 좋다고 본다. 눈물이 팽 들었던 때가 있다. 누가 좋은 글을 많이 써줬다. 위안이 많이 되었다.

자살자 주변 인물과의 면담에 대한 분석

주변 인물 1은 자살자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있은 후 친척 1명과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학교 내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학

생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자살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다음의 내용은 두 사람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가족 관계: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자살자의 어머니는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자살자가 죽기 6개월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준비된 죽음이었기에 급작스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위로 누나가 하나 있다. 주변 인물 1 말로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인 것 같았으며, 자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친척중 1명이 어른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만나보니 점잖고 인텔리같았다고 했다.

교우 관계: 두 사람 모두 자살자에게 깊이 사귀는 친구가 없었다고 했다. 친구에 의하면, 자살자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격은 활발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털어놓고 지내지를 못했고, 너무 튀는 면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지를 않았다고 했다. 가령 비디오를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남들이 말려도 계속 했다고 했다. 주변인물 1 말로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였다고 했다. 성격에 비해서 친구 숫자가 너무 적었다면서 죽었을 때도 찾아오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고 했다.

학업 관계: 진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평균적인 경로를 벗어난 적이 있는데 주변인물 1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친구는 자살자가 말을 하지 않아서 뒤늦게야 알았다고 했다. 주변인물 1은 자살자가 수업시간에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면, 성적에 대해서는 강박 관념이 심한 편이어서 10개를 요구하면 8개를 해냈어도 나머지 2개를 걱정했다고 했다.

성격: 친구 말에 따르면, 남들이 자기 무시하는 것을 대단히 기분 나빠해서 누가 밀치고 가다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화를 많이 냈다고 했다.

자살자와 주변인물 1과의 면담 내용: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심적인 고통으로 학교를 쉬기를 원한다고 하여서 주변인물 1은 그것보다도 정상적 학교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라고 권유했다.

자살자의 친척과 주변인물 1과의 면담: 얼마전에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해서 입원했다면서 멀리있는 다른 친척댁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학교를 쉬게 해야겠다고 하였다.

자살 사이트 가입여부에 대한 인지: 누나가 가입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 인터넷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누나 말에 따르면 자살자는 자살 사이트 회원들을 만나러 다른 지방까지 가고, 자주 만났다고 했다.

논 의

자살시도자와 자살자가 자살 사이트 접속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살에 대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에 대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살 사이트 접속 이전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몇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자살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 이들 사항을 자살에 대한 위험 요인 모델(Sanchez, 2001)에 따라 범주별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역사적 요인에 관하여 두 사람 모두 자살력이 있고, 자살시도자의 경우는 정신 장애가 의심될만한 부분이 있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 술을 마시는 것은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대처 방략이다. 면담 여건상 깊이 탐색하지는 못했지만 힘들때면 혼자 술을 마시며, 술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었다는 면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콜 남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알콜 남용의 경우 자살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APA, 1994).

두 번째로 개인적 요인에 관하여, 먼저 성격적인 면에서, 자살시도자의 경우 충동적 경향성이, 자살자의 경우는 완벽주의적 경향성이 의심되었다. 자살시도자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이 과정과 자살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보면 충동적 경향성과 관련될 수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살자의 경우는 자신이 성취해 낸 많은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이 미처 완수하지 못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Hewitt와 Flett가 말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Chang & Rand, 2000)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살 생각과 충동성의 상호 작용은 자살 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며(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완벽주의는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요인이다 (김영환, 1998). 또한, 자살자의 경우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대단히 기분 나빠했으며, 이야기 도중 학업적으로 더 우수한 친구들에 대한 빈번한 언급을 하는등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한다. 낮은 자존감 또한 자살과 연관될 수 있는 변인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기술의 여부는 자살시도자의 경우 특히 빈곤한 편이었다.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 늘 혼자서 고민하다가 끝내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고 술을 마시곤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자살시도자에게 있어서, 자살은 명백히 희망이 없어보이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라는 식의 왜곡된 인지가 있었으며, 극히 빈곤한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었다.

Sanchez(2001)의 모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에게 있어서 비중을 두고 고려해보아야 하는 또다른 개인적 요인으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자살자의 경우, 사람들과 사귀려고 애를 썼지만, 털어놓고 지내지도 못했고, 자살자의 행동 방식을 다른 학생들이 별로 탐탁치않게 여겼다고 하였다. 성격에 비해서 친구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주변인물 1의 말은 자살자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도, 빈번히 친구나 동료들에게 돈을 떼었다고 했는데, 역시 이와 관련되어 사회적 기술의 결핍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심리사회적 요인은 두 사람의 아주 뚜렷한 위험 요인이었다. DSV-IV(APA, 1994)의 네 번째 진단축에 기준을 두고 말하자면, 일차적 지지 집단과의 문제, 사회적 환경과의 문제, 경제적 문제에 모두 위험요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두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이혼한 부모 밑에서 어린 나이부터 가장 역할을 맡아서 힘들게 살아 왔으며, 자살자의 경우는 아버지에 이어서 병으로 최근 어머니마저 여윈바 있다.

경제적 문제는 자살시도자의 경우 자살에 대한 주요한 촉발인자였다. 최근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고, 자살시도를 하던 날은 은행에 다녀온 날이었다. Heikkinen이 제시한 자살 모델에 따르면, 혐오스러운 생활 사건은 자살의 촉발

인자로서 자살에 매우 근접해서 일어난다고 말한 바 있다(김영환, 1998). 역사적 요인 혹은 기질적 요인과 기타 다른 개인적 요인들에 더해서 혐오스러운 생활 사건을 경험하고 주변에 자살에 유용한 수단이 있을 경우 자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여줄 보호 요인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Sanchez (2001)은 보호 요인으로, 가족 및 비가족의 지지 시스템, 의미있는 관계들, 만족스런 사회 생활, 여가시간이 건설적 이용이 모두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용이나 종교, 문화등도 보호 요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연구에서 자살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어온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경우를 보면 이 부분에서의 결핍이 매우 두드러진다.

자살자의 경우, 중요한 보호요인의 손상이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생활 사건이 되면서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자살시도자는 여동생이, 자살자는 누나가 각각 있었지만 이들 두 사람은 전혀 사회적 지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환경의 측면에서도 역시 두 사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살자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가 없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 친구조차도 자살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 못했다. 자살시도자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그의 심리사회적 환경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자살 사이트가 자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작용 기제

자살 사이트 접속 동기는 “얘기할 데도 없고 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또, “편하게 죽고 싶었다. 누구랑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저 편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사이트 들어갈 때는 죽음 생각이 반반 정도였다”는 자살 시도자의 말로 너무나 잘 대표될 수 있다. “얘기할 데도 없고 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는 말은 자살자가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택하고 있는 대처 방안의 성격을 보여준다. 자살시도자가 말하는 “얘기할 데”란 문제 해결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체적 지지와 힘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살시도자가 문제 상황에서 절박하게 원하였던 것은 실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였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른 상황으로의, 그러나 더 편안한 상황으로의 전환을 원했고, 그러한 가운데 선택된 것이 ‘자살’과 ‘인터넷’이다. 자살은 현재 상황에서의 영원한 도피처이며, 인터넷은 가장 편리하게 선택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이다. “죽음 생각은 반반이었다”는 말을 보면 자살시도자의 궁극적 목표는 죽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풍부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는데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유능성 정도는 별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최저선이 이메일, 전자게시판, 검색기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일뿐 전체적으로 두 사람간의 기술적 유능성은 차이가 컸다. 이는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 능력만 있다면

유사한 동기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인터넷을 대안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살시도자의 말에 따르면, 그가 들어가서 접한 게시판 내용의 대부분이 하소연하는 내용이었고, 90%가 아이들, 즉 청소년들이었다고 했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대안이 인터넷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인터넷이 다음 순간부터는 접속자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위협당하고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혼자 있기보다는 비슷한 형편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한다(Schachter, 1959). 즉, 높은 공포 조건의 피험자들은 낮은 공포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타인과 함께 있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높은 공포 조건이라고 하여도 상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유발된 상태이다. 이 경우에도 비슷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 있다.

현실 생활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욕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터넷에서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에 접근해갈 수 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자살 사이트를 찾았고, 게시판 메시지를 검색하며 자신과 교류할만한 사람을 찾았다. 인터넷 접속후의 과정들이 현실에서와 가장 달랐던 부분은 바로 이처럼 무엇이든 원하면 별다른 노력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깊이있는 문제

해결책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살시도자는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에 대한 공감은 강한 집단 응집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Stoner에 따르면 집단은 개인으로 있을때보다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1961: Baron & Byrne, 1987에서 재인용). 높은 수준의 집단 응집성, 외부 정보나 영향으로부터 고립된 집단 조건, 영향력있는 리더, 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높은 스트레스는 집단사고를 유발시키는데, 집단 사고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집단적 합리화와 집단의 현재 사고를 반대하는 그 어떤 정보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집단은 동조에 대한 강렬한 압력을 형성하여 누구도 도전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매우 극단적이고 형편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Baron & Byrne, 1987). 그런데, 자살 사이트를 통한 만남은 앞서 언급한 집단 사고의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해있는 개개인은 과도한 몰입과 표현을 통해, 과장된 정서 상태에 근접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사고를 통해 더더욱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다.

자살시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점이 매우 잘 드러난다. “모두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죽은 것 같다”면서, 특히 자살자를 가르켜, “순진한 엔데 분위기에 휩싸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살시도자는 이를 가르켜 마치 집단 최면과도 같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시도 과정과 두 번째 시도 과정 모두를 살펴보면, 모두들 죽음에 대해서 접을 내고 있으나, 집단 압력 때문에 감히 먼저 그만두자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죽기 위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B를 무서워하면서 잘 때는 다들 문을 걸고 잤다고

하였다. 즉, 이들이 서로 동조를 했던 것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었을 뿐 자살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자살 사이트는 예기치 않게 죽음을 현실화 시켜버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B와 같은 회원의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한다. 정신분석에서는 자살과 살인을 행위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모두 공격성의 범주에서 이해하려한다. 마찬가지로 자살 사이트에도, 양쪽 방향의 공격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 모여들게 될 위험성이 있다. B와 직접 면담을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여러 상황에서 공격의 주체로 행동하였음이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얼굴을 대면하는 현실 생활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편리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용자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 즉, 현실 생활에서는 대상을 먼저 만나고 메시지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먼저 고려 대상이 되나, 인터넷에서는 메시지를 먼저 접하고 나중에 그 메시지의 주체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설령 메시지의 주체가 매우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매우 낮은 정신건강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게 된다. 자살 사이트는 현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자살로 선택할 만큼의 심리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와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제 3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극단적인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원

인과 과정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하여 매개된 자살은 자살에 대한 일반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자살에 대한 일반적 접근들에서 다루고 있는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동기를 비롯하여 접속 이후의 과정들 또한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경우 자살에 대한 예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에 대한 탐색과 개입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 인터넷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의 특성 자체가 과거에 비해 자살에 대한 개인적 위험 요인과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은 증가시키고,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요인들은 더 약화시키는 측면을 내포하게 되면서, 이러한 요인들 각각의 변화가 인터넷의 여러 가지 특성들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자살 사이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보다 더 다각적이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을 보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는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지지, 특히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극히 결핍된 상태였고, 더구나 자살자의 경우는 아버지에 이어서 최근 어머니마저도 여의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지지가 더욱 중요하여, 윤성립과 윤진(1993)은 부모의 부재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 및 결혼 가정 상황은 자살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

들 두 사람은 건디기 힘든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안으로 자살이 아닌 자살 사이트를 택했다.

죽고 싶을 만큼 건디기 힘든 상황에서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살에 근접해가는 행동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내면적으로는 사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긴박하고도 절박한 추구에 더 가깝다. 최근의 우리 사회는 이혼율의 급증과 재혼등을 통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형태에서는 꽤 벗어나고 있는 상황, 즉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지지라는 보호요인이 약화되면서 개인이 여러 가지 심리적 위험 요인들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리 사회의 진행 과정은 사회적 지지 구조의 급격한 약화를 수반하기는 하였지만, 약화된 지지 구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사회적 지지 구조를 결핍한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살 사이트를 찾아들어가는 일, 혹은 기타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순간에 인터넷 접속부터 나서는 일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반작용일 수도 있다. Walther와 Boyd(2002)는 최근 논문에서 인터넷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회적 지원임을 주장하며, 오프라인의 사회적 지원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터넷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Walther와 Boyd(2002)는 인터넷은 현실적인 사회적 지원들에 비해 “약한 유대 네트워크(weak-tie network)”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점이 사회적 지원으로서는 도리어 이점이 된다고 보았다.

인터넷이 주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회

적 지원이 될 수 있기까지 양쪽 모두가 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하는 바가 많았다. 대인 관계를 개시하고 유지 혹은 발달 시켜나는데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에서는 주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인터넷은 필수 사회적 기술이 없이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의 학습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단순히 특정 메시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는 사고와 감정을 통해 빠르게 사회적 네트워크이 형성될 수 있고, 또 유사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 줄 모르는 사람도,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도 인터넷에서는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즉흥적인 사회적 지원들은 개인의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인터넷에서는 대개의 경우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일차적 메시지를 도외시키고 표면에 드러난 이차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공감 혹은 주목이었다 하더라도 행동은 자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가 쉽다. 또한, 큰 노력없이도 짧은 시간내에 정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대처 경향성을 발달시킬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강한 감정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간에 역시 강도 높은 다른 감정으로의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자살 충동과 같이 자극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한 집단 역동은 공격성이라는 큰 틀안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Jones(1999)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인터넷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만

컴 온라인 커뮤니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람들의 심리적 과정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고, 이러한 기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한 심리학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인터넷 공간이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속의 개인과 현실 공간속의 개인이 해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인은 인터넷 공간속에, 전문적인 심리학적 서비스들은 현실 공간, 즉 오프라인 공간속에 서로 따로 떨어져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자살 사이트 문제는 정신건강 분야의 심리학적인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함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의 중심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 만큼, 상담자의 역할을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에 대한 총괄자로서 인터넷이 유발해낼 변화를 미리 읽고 그 방향에서 미리 기다릴수도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변화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어느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상담 모형을 충실히 따르되, 어느 한편에서는 사회의 변화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약화되는 심리적 기능들을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강화시키려는 노력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령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발전 방향에서는 과거 전통적 사회에 비해서 사회화 기능이 축소

되는 측면이 수반된다. 따라서, 필수 사회 기술의 획득이 점점 더 빈약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자살 생각을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동 조절하는 능력을 미리 배웠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비롯한 기타 필수 사회 기술의 학습에 대해서 과거에는 가정이 상당 부분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사회 기술은 미래의 적용 수준을 예언해줄 수 있는 중요한 생존 기술인 만큼, 가정 교육에서 배제된 부분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보충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정규 교과과정의 일부로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친사회적 기술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금지 해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릴 수 밖에 없다. 결과로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터넷 이용에서도 붕괴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대비시켜줄 수 있는 예방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인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지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요소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성은 유지하되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하고 유연한 그리고 다차원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각각의 세부 요소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족을 대신해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를 정신건강 서비스의 모듈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과 개인이 연계된 그러나, 그 연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서로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촉진시키고, 전문가가 감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역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현상태에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었던 점은 온라인 공간상에서의 심리학적 위기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자살 의도나 혹은 기타 위기 상황이 탐지되었을 경우 그 의도를 탐지한 사람이 동일 사이트의 회원이든 아니면 혹은 관련 전문가이든간에 이들 사항이 체계적으로 의뢰되고 관련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이용이 사람들의 생활속에 점점 더 많이 확대되어가고 따라서, 어린 연령에서의 이용도 확대되어가는 만큼 온라인 공간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응급센터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 문제는 인터넷의 극단적 역기능을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 상담 학계의 더욱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0, 12, 31). 2000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http://www.khan.co.kr>에서 2001, 6, 1 인출.
- 경향신문 (2002, 2, 24). '안티-자살사이트'에서 자살 모의. <http://www.khan.co.kr>에서 2002, 3, 4 인출.
- 국민일보 (2000, 12, 16). 자살 사이트 충격적 행적. <http://www.kukminilbo.co.kr>에서 2001, 6, 1 인출.
- 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 및 성격, 12(1), 1-36.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1). 정서적 고독감과 인터넷 효능감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39-57.
- 김애순, 윤진 (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김영환 (1998). 부적 사건 경험, 완벽주의적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 생각간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운 (2001). 아동의 생산과 소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59-79.
- 김향초 (1993). 청소년기 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167-181.
- 류인균, 하지현, 양은주, 김영미, 장창곡, 우종인 (2000).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 신경정신의학, 9(1), 16-26.
- 문성원 (1998).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원 (1999a).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의사소통을 활용한 심리학적 서비스 모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63-78.
- 경향신문 (2000, 12, 31). 2000년 우리들의 일그

- 문성원 (1999b). 제 11장. 사이버 공간과 상담. 한규석과 황상민 (편). *사이버 공간의 심리* (pp.287-311). 서울: 박영사.
- 문화일보 (2001, 10, 20). 자살 사이트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http://www.munwha.co.kr>에서 2002, 3, 4 인출.
-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298-314.
- 통계청 (2000). *사망원인 통계 연보*.
- 삼성출판사 (1986). *새 우리말 큰사전* (제 4판 제 2권). p.2383.
- 송중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 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286-297.
- 연합뉴스 (2001, 12, 20). [성추행] 자살 사이트서 만난 여중생들 성추행. 한겨레신문.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2, 3, 4 인출
- 윤성림, 윤진 (1993).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107-120.
- 이수원 (1989). 정보화사회에서의 신인간상. 1989년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 요인.
- 이영준 (2000).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에서 지각되는 사회적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 등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훈구 (1989). 정보화 사회에서의 심리학의 역할. 1989년 한국 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 요인.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2001).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 행태 조사*.
- 장윤영, 차형수, 이정희 (1996). 대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의학회지*, 17, 1120-1120.
- 전자신문 (2001, 10, 10). 어린이, 성인·자살 사이트 접속률 급증.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2, 3, 4 인출.
- 조명한 (1994).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II. '93 통신 학술 연구과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조충환, 이상권, 이선미, 김홍기 (1996). 가족 적응력, 결속력과 우울,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의학회지*, 17, 1148-1148.
- 조한혜정 (2000). N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8.
- 차재호 (1984). 동기진단검사. 전인교육발전연구소.
- 최영, 이미숙 (2000). 십대의 자살. <http://childpsy.webpd.co.kr/factfam-10.htm>에서 2001, 4, 10 인출.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1986).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법문사.
- 한겨레신문 (2000, 12, 15). 인터넷 통해 자살 원하는 이 '촉탁살해'. <http://www.hani.co.kr>에서 2001, 6, 1 인출.
- 한국심리학회 (1997). *현대심리학의 이해* 제8장. 서울: 학문사.
- 홍강의 (1998). 청소년 자살, 미리 막을 수는 없는

- 가. 부모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 시리즈. 38. 익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 홍강의 (1998).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청소년의 동반 자살과 그 대책.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1 (pp.59-68). 5월 7일.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유방암 환자를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복지연구*, 15, 291-310.
- Alao, A. O., Yolles, J. D., & Armenta, W. (1999). Cybersuicid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11), 1836-183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een Suicide. Retrieved March 5, 2002, from http://www.psych.org/public_info/teenag~1.cfm.
- Ash, S. E. (1955).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 31-35.
- Bandura, A. (1986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1), 3-11
- Baron, R. A. and D. Byrne 1987.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5th ed. Allyn & Bacon Inc
- Berkowitz, L.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 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lumenthal, S. J., & Kupfer, D. J. (1988). Overview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23.
- Bolger, N., Zuckerman, A., & Kessler, R. C. (2000). Invisible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53-961.
- Brent, D. A., Perper, J. A., Goldstein, C. E., Kolko, D. J., Allan, M. J., Allman, C. J., & Zelenak, J. P. (1988).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 A comparison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with suicidal in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581-588.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29-137.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llins, A., & Loftus,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Cope, D. D. (1995). Functions of breast cancer support group as perceived by participants: An ethnographic study. *Cancer Nursing*, 18, 472-478.
- Costigan, J. T. (1999). Introduction. In S. Jones (Ed.). *Doing internet research*. (pp. xvii-xxiv). SAGE Publications, Inc.
- Crain, W. (1983).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Dobson, R. (1999). Internet sites may encourage suicide. *British Medical Journal*, 319, 337. Retrieved May 23, 2001, from ProQuest database.
- Durkeim, D. 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Ely, M. (1991). *Doing qualitative research: Circles within circles*. London: The Falmer Press.
- Fontana, A., & Frey, J. H. (1994). Interviewing.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361-376). SAGE Publications.
- Forsyth, D. R. (1983).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Monterey, Calif.: Brooks/Cole.
- Garland, A. F., & Zigler, E. (1993).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Current research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8(2), 169-182.
- Gerard, H. B., Wilhelmy, R. A., & Conolley, E. S. (1968). Conformity and group siz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79-82.
- Gould, M. S., Shaffer, D. (1986). The impact of suicide in television movi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690-694.
- Hendin, H. (1987). Youth suicide: A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151-165.
- Hill, C. A. (1987). Affiliation motivation : People who need people but in different wa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08-1018.
- Hillbrand, M. (2001). Homicide-suicide and other Forms of co-occurring aggression against self and against oth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2(6), 626-635.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SAGE Publication.
- Janson, M. P., Alessandrini, E. S., Strunjas, S. S., Shahab, H., El-Mallakh, R., & Lippmann, S. B. (2001). Internet-observe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2(6), 478. [Abstract] retrived March 5, 2002, from PsyInfo Database.
- Jones, E. E., & Gerard, H. B.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 Wiley.
- Jones, S.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 in psychopathology :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Kiesler, S., Zubrow, D., Moses, A. M., & Geller, V. (1985). Affect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 Kimmel, D. C. (1980).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 Wiley.
- Lea, M., O'Shea, T., Fung, P., & Spears, R. (1992). 'Flaming'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bservation, explanation, implications. In M. Lea (Eds.). *Contex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p. 89-112). [Abstract] retrieved March 5, 2002, from PsyInfo Database.
- Leyens, J. P., Parke, R. D., Camino, L., & Berkowitz, L. (1975). Effects of movie violence on aggression in a field setting as a function of group dominance and cohe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46-360.
- Lieberman, M. A. (1988). The role of self-help groups in helping patients and families cope with cancer. *CA Cancer Journal of Clinician*, 38, 162-168.
- Menninger, K., Mayman, M., & Pruyser, P. (1963).

- The vital balance: The life process in mental health & illness.* Viking Press.
- Moon, S-W, & Han, J.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KPA 50th Anniversary Conference. Seoul, Korea.
- Morris, W. N., Miller, R. S., & Spangenberg, S. (1977). The effects of consensus-breaking and consensus-preempting partners on reduction of confor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15-223.
- Morris, W. N., Miller, R. S., & Spangenberg, S. (1977). The effects of dissenter position and task difficulty on conformity and response to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45*, 251-266.
- Moscovici, S. (1985).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pp. 149-202). New York : Academic Press.
- NIMH. Issues to consider in intervention research with persons at high risk for suicidality. <http://www.nimh.nih.gov/research/index.cfm>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 Kegan Paul.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 (1990). Integrating social support perspectives: Working models, personal relationships, and situational factors. In S. Duck with R. C. Silver (Eds.),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pp. 173-189). Newbury Park, CA: Sage
- Prentice-Dunn, S., & Rogers, R. W. (1982). Effects of public an private self-awareness on deindividu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03-513.
- Prentice-Dunn, S., & Rogers, R. W. (1983). Deindividuation in aggression. In R. Geen and E. Donnerstein (Eds.), *Aggress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s.* New York: Academic Press.
- Reagel, K. F. (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 689-700.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Addison-Wesley publishing: New York.
- Roy, A. (1986). Genetic factors in suicide.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2*, 666-668.
- Sanchez, H. G. (2001). Risk factor model for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2*(4), 351-358.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chachter, S. (1959).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opler, J. H., & Ganlinsky, M. A. (1993). Support groups as open systems: A model for practice and research. *Health and Social Work, 18*, 195-207.
-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1997). *사회 심리학 (홍대식 역).* 서울: 박영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 Shaffer, D. (1974). Suicide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Psychiatry, 45*, 406-451.
- Siegel, J., Dubrovsky, V., Kiesler, S., & McGuire, T. (1986). Group process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Decision Processes. 37*(2) 157-187.
- Tapscott, D. (1999).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와 유명만 역).*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Taylor, S. E., Falke, R. L., Shoptaw, S. J., & Lochman, R. R. (1986). Social support, support groups, and the cancer pati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608-615.
- Thompson, S. (1999). The Internet and its potential influence on suicide. *Psychiatric Bulletin, 23*(8), 449-451. Abstract retrieved March 5, 2002, from PsycInfo Database.
- Walther, J. B. (1995). Relation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xperimental observations over time. *Organization Science, 6*(2), 186-203.
- Walther, J. B., & Boyd, S. (2002).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In C. A. Lin & D. Atkin (Ed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ociety: Audience adoption and uses*. (pp. 153-188). Cresskill, NJ: Hampton Press.
-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Yalom, I. D. (2001). *집단 정신 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혜림과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3년에 출판)
- Zimbardo, P. G. (1970).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impulse, and chaos. In W. J. Arnold and D. Levine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69*.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29-137.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22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6. 14

Suicides Mediated by Internet Sites about Suicides: The Explorative Study on the Suicidal Cases Related with Suicide Sites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suicides mediated by internet sites about suicide in psychological aspects. Study 1 examined the suicidal cases involved with suicide sites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not involved with the web sites. Study 2 explored the psychological variables before the suicide and the process of suicide mediated by the suicide web sites with the cases of a suicide attempter and a completer. Suicide mediated by suicide sites was the complicated matter that was interlocked by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on the web.

Increased risk factors of suicide and the diverse roles of internet in modern society, the future paradigm of mental health service, and the need for the crisis intervention system on the web and the web based prevention program were discussed.

Key Word : internet site, suicide site, suicide, suicide attempter, suicide completer, prevention